

공모지원 선정 기준 및 이유

‘생애 첫 작품발표회’는 신진 작곡가의 발굴 및 창작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상반기 1차(상반기)와 2차(하반기)로 나누어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모두 16건의 사업을 지원 접수하였다.

이번 심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선 1차 공모 때보다도 공모신청자의 평균적인 연령대가 낮아졌는데, ‘생애 첫’이라는 글귀의 의미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또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거나 공연에 시각 등 음악 외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례가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탈장르화와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본 심의위원 일동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편견 없이 심의에 임하였음을 밝힌다.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각 공모 지원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악보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심의 당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총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고 구하고 수준 높은 국악 앙상블 작곡 능력을 보여준 신세희, 다양한 편성과 주제로 작곡했으면서도 한결같이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준 신원희, 뛰어난 작품성으로 창작 가곡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한 오세일, 이상의 실험성 높은 문학에 역시 실험적인 편성과 기법의 음악을 접목한 유리나, 현악 사중주라는 대단히 전통적인 장르에서 치열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유진선이 그 대상자들이다.

심사위원들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쉽게 탈락한 분들께는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본 사업이 해가 갈수록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국 창작음악의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창작음악 실험무대-생애 첫 작품발표회 2차 공모 심의위원 일동